

# 매일 만나

2022. 1.

고린도후서 11장 ~ 13장, 사무엘하 1장 ~ 11장



원주중부교회 큐티집

**"QT 매일 만나" 는**

Quiet Time 의 첫글자인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 만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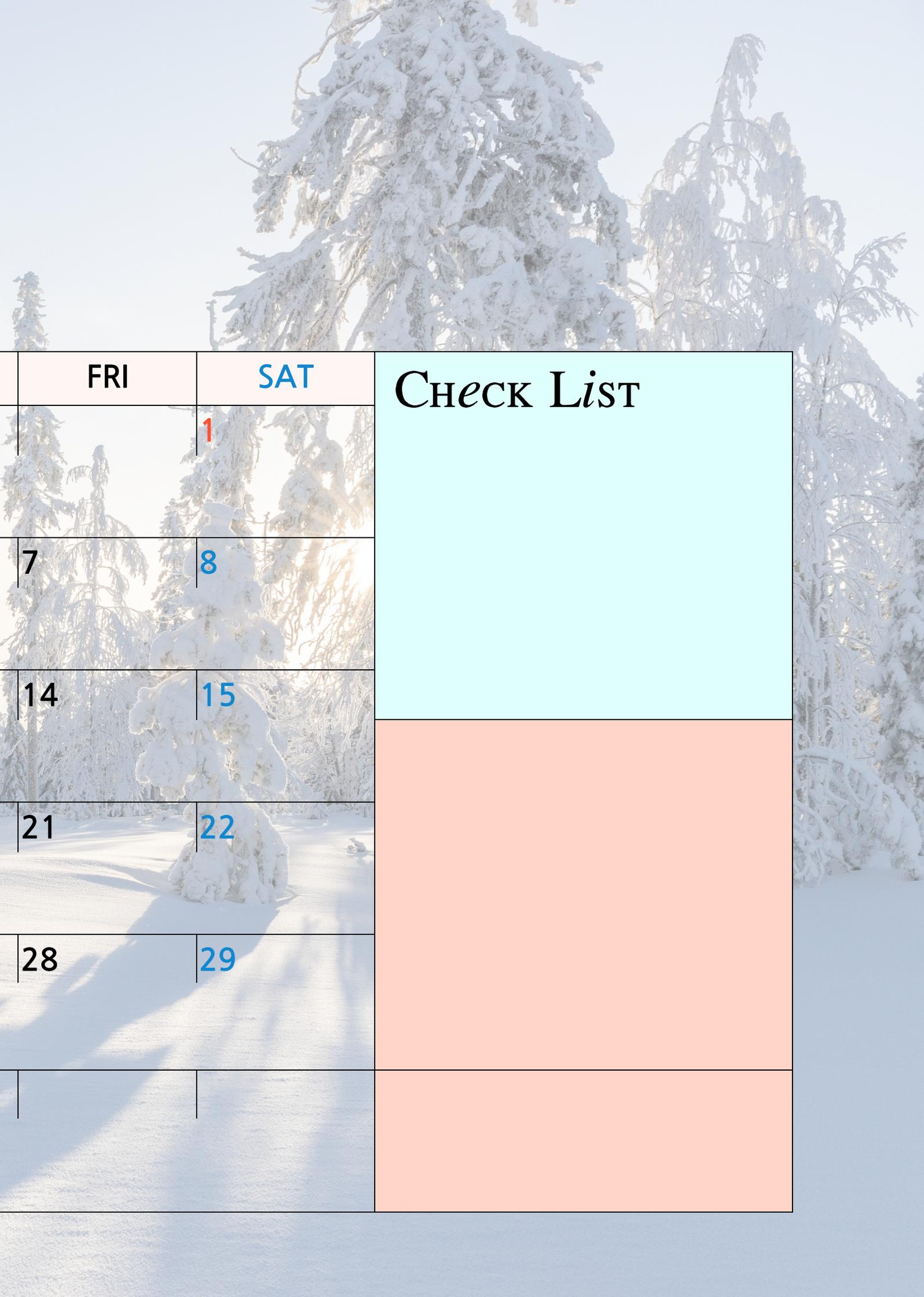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 일월

## Monthly Plan

SUN	MON	TUE	WED	THU
2	3	4	5	6
9	10	11	12	13
16	17	18	19	20
23	24	25	26	27
30	31			



FRI	SAT	<h1>Check List</h1>	
	1		
7	8		
14	15		
21	22		
28	29		

# 행복하게 하는 복음

## 〈우리는 모두 전도자〉

현대인들의 큰 특징 한 가지는 매우 바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살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두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며, 성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중요한 일과 바쁜 일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급하지 않은 중요한 일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남는 것이 별로 없게 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생을 바쁘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반드시 사람, 즉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야 할까요?

믿는 자는 본질적으로 모두가 전도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만나 보셨습니까?  
차라도 한잔 함께 마시고,  
때로는 식사도 함께 하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구원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영혼구원에 열정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Holy Bible survey*

# 사무엘하

안광모 목사

## I. 배경과 주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본래 하나의 책으로, 사무엘상의 내부적인 배경과 흐름이 영적인 어둠의 시기인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 끝무렵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면,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로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라고 하셨던 다윗의 통치를 기대하게 한다. 사울의 등극은 온 이스라엘과 사무엘의 기쁨이었지만 그의 통치와 행적은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한편 사무엘서의 외부적인 배경은 가나안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조용한 때였다. 앗수르는 막 중흥기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서쪽으로는 확장할 여력이 없었다. 이 제국은 다윗보다 약 1세기 후에 살만에셀 3세 때 가장 번성하게 된다. 애굽도 제3중간기로서 외부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던 시기였다. 이 기간에 애굽의 침입은 없었던 것 같다. 소아시아에는 헷 제국이 멸망하고 몇몇 도시 국가들이 남아 있었다. 다윗과 솔로몬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다. 이러한 고대 근동의 상황은 가나안 땅의 많은 작은 나라들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아람,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 버니게,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들이다. 이스라엘은 다윗 통치하에서 이 지역의 강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다윗은 많은 나라들을 복속시켰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도 영향력을 더 확장하여 북으로는 유브라데 강과 남으로는 애굽강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된다.

사무엘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와 더불어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불린다.

기록 시기도 다른 역사서들에 비해서 먼저 쓰인 책들이고 신학적 주제도 같다. 이들은 모두 신명기와 밀접한 신학적 관계를 갖는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제사장을 비롯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 기록된 여호와와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설명하며 순종할 때 오는 축복과 불순종 때의 저주가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한다. 그래서 사무엘하도 신명기적 관점에서 보면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무엘하의 내용에만 근거하여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 사무엘하는 남북 분열 왕국 체제 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날 다윗의 통일 왕국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했던 과정과 또 다윗의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있음을 보여 주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아울러 사무엘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였던 다윗 왕국도 인간의 죄로 인한 왜곡과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었음을 보여 줌으로써 인간은 결국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우리의 왕 메시아가 세우실 메시아 왕국만이 이를 보장해 줄 수 있음을 각성시켜 주고 있다.

한편 사무엘하는 다른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일부분에서는 연대기를 무시하고 주제별로 기록하는 등 편집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저자가 특정 사안, 예컨대 왕권 교체의 정당성이나 다윗의 범죄와 그 결과 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II. 역사적 정황

사무엘하는 내용에 따라 제1부 1-10장, 제2부 11-20장, 제3부 21-24장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제1부 1-10장에서는 다윗의 순종과 하나님의 언약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사울 왕의 전사 이후 다윗이 간음 및 살인죄를 범하기 전까지 그의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의 즉위 과정과 연이어진 왕국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 종교, 법적개혁 및 성공적인 주요 정복전쟁의 기사를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제1-5장은 사울 사후부터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까지의 역사와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여호와 신앙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앞세운 인본주의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일면 불행한 일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불순종한 사울을 폐하고 그를 대신하여 택하신 새 왕 다윗이 등장하여 하나님께 합한 신정 왕국을 건설, 정착시키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었다. 다윗은 사울이 죽자 헤브론으로 가서 일단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한다(2:1-4).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2차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게 되며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는다(5장).

다음으로 제6, 7장은 언약궤의 다윗성 안치와 다윗 언약체결에 대하여 다룬다.

다윗은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약 70년간 기랴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와 안치한다. 이는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남과 북을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고 또 백성들의 혼란했던 신앙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신본주의적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을 보다 공고히 하는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한편 하나님은 당시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다윗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일차적으로 다윗 왕권과 성전에 관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전 인류의 구속주가 되심으로써 택한 백성의 영원한 왕이 되실 메시아 예수의 왕권과 왕국 건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예언적 언약이다.

끝으로 8-10장은 다윗의 주요 정복 전쟁과 공의로운 통치에 대하여 다룬다.

다윗의 정복전쟁은 사방으로 이루어졌다.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북으로는 아람 족속의 나라들을, 동으로는 모압과 암몬을, 남쪽으로는 에돔을 정복하였다. 9장에서 르비보셋을 선대한 사건은 다윗의 공의로운 통치의 한 일면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11-20장은 다윗의 불순종과 그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1부에서 다룬 다윗의 성공 및 번영과 대조되어 다윗의 범죄 곧 밋세바 간음 사건 및 우리아 살해 사건과 그로 말미암아 다윗과 왕국에 닥친 연속적인 시련에 대하여 다룬다.

이스라엘 신정 왕국의 새 왕으로 다윗 언약까지 허락받았던 다윗은 일순간 영육 간에 나태에 빠진 결과 정욕의 유혹을 받아 밋세바와 간음을 하는 죄를 범하고 만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밋세바의 남편으로서 자신과 나라에 충성스럽던 우리아를 대적의 손을 빌어 살해하는 죄까지 범하게 된다(11장).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다(12장). 이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죄의 대가만은 치러야 했다. 간음으로 낳은 아이의 죽음(12:15-23), 암논의 다말강간(13:1-22), 압살롬의 암논 살해(13:23-33)와 반란(15:1-18:33), 세바의 반란(19:1-20:26)은 모두 다윗이 뿌린 죄의 열매들이었다. 특별히 여기서 세바의 반란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후 다윗 환궁 과정에서 그 절차 진행의 주도권을 둘러싼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이의 분쟁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즉 다윗의 환궁 절차에서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다른 지파가 향후 다윗 왕국에서 소외될 것을 알고 유다 지파와 다투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 소속의 세바가 열 지파 사람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 반란은 요압에 의해 진압되기는 하였으나 이때부터 북쪽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가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결국 이 사건은 솔로몬 이후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중요한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2부의 내용은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인간 중에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줌과 동시에 죄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울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면서도 회개하면 죄인 자체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진리를 깨우쳐준다.

끝으로 제3부 21-24장은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사울 후손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다윗왕국 초기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목적을 가지고 사무엘서의 뒷부분을 후기 형식으로 쓴 것 같다. 이 부분은 전후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A 사울 왕국의 언약함(21:1-14)

B 영웅적 이야기: 다윗의 용사들(21:15-22)

C 다윗의 찬양(22:1-23:7)

B' 영웅적 이야기: 다윗의 용사들(23:9-39)

A' 다윗 왕국의 언약함(24장)

결국 이 부분은 사무엘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며 메시아인 다윗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전후 대칭구조는 본문에서 다윗의 찬양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다윗의 힘이 아니라 다윗을 돕는 용사들의 힘이 컸다는 것도 말하고 있다. 이 구조의 가장 바깥 부분에서는 사울이나 다윗은 결국 언약한 인간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언약을 어겼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여 온역이 온 나라에 3일간 임했다. 결국 다윗은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

동시에 사무엘하의 후반부에서 다윗의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 왕권이 미완임을 나타내며, 성전으로 상징되는 안식도 아직 미완임을 나타낸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약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다. 성전 건축은 '아들'에게 허락되고 안식도 그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암시는 직접적으로는 솔로몬 왕 때 이뤄지긴 하나 궁극적으로는 참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다윗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온역이 임했지만 이를 통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게 되고 바로 이곳이 성전 터가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보여 준다. 인간의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상과의 연장선상에서 그 뜻을 이해해야 한다. 사무엘서는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말하므로 그 왕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을 세우셨음을 증언한다. 또한 다윗의 언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윗의 아들은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는다. 그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불완전하여 그 뒤를 이룰 아들이 이스라엘에 참된 평화를 가져올 왕이다. 뒤에 온 평강의 왕 솔로몬도 참된 왕은 아님을 열왕기는 보여 준다. 결국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참된 왕,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게 된다. 그가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와 연관되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성전과 법궤다. 성전도 다윗에게 약속되고 법궤도 엘리 시대부터 방황하던 것을 멈추고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게 된다. 드디어 앞으로 짓게 될 성전으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것을 본다.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안식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도 그림자에 불과하다. 참된 성전, 하늘의 성전이 임할 때 참된 여호와와 통치가 이루어진다. 사무엘하는 이러한 구원사의 과정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증거 하고 있다.

# 02

주일

## 나를 용납하라

고린도후서 11:1-10

새찬송가 29장

- 1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 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도 그러나 나는
- 3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 4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 5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 6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 7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 8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 9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 10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말씀 암송**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고후 5:13)



본문이해

## 1~10절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바울의 사역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역할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뱀을 통해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게 합니다. 실로 태초 이래로 초대교회와 지금까지 사단은 그의 하수인을 통해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에 의지하여 물리치고,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물질에 대한 자유함과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으로 복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보다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의지하며, 굳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적용질문



삶 속에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Large light blue rounded rectangular area for writing answers.

# 03

월요일

##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11 ~ 15

새찬송가 323장

- 11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12 나는 내가 해 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13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  
는 자들이니라  
14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  
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 암송**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고후 11:31)



본문이해

## 11~15절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진정한 성도란 오히려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 먼저 길을 개척하는 자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신하여 서로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꼬집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지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삶과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단과 같은 사단의 하수인들은 서로 분쟁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불신을 심어줍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가장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부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늘 말씀의 의지하여 판단하고, 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시고, 거짓된 모든 것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적용질문



하나님의 앞에서 경계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Blank space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04

화요일

##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

고린도후서 11:16~33

새찬송가 393장

- 16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 17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 18 여러 사람이 욕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 19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 20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 21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 22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 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 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 26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 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 28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 29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 30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 31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 32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 33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말씀 암송**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롬 1:14)



## 16~33절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바울이 자신을 거듭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신앙 여정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은 바울에게 넘치도록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랑할 것은 연약함이라는 바울의 독백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고백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Q**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05

수요일

##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1~10

새찬송가 300장

- 1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 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 3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 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 5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 6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 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말씀 암송**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 1~10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있었던 것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심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족하다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더욱 완전해지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의 시험이 보여질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Q** 가장 절실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 06

목요일

##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고린도후서 12 : 11 ~ 13

새찬송가 412장

11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 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12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13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말씀 암송**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후 12:12)



## 11~13절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면서 간증의 위험 요소를 발견합니다. 이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어리석은 자라고 자처합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로서 육체적인 피곤함과 외부로부터 오는 극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참았습니다.

또 바울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표적은 복음을 확증하는 능력이며, 기사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을 갖도록 하는 능력이고,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힘을 말하는 것으로, 바울이 계시가 된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목회자로서 또한 사도로서 겸손히 다스림을 받으며 주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엄과 권위로 교회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배려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인도를 받아야 본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Blank space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07

금요일

## 내 자신까지 내어 주리니

고린도후서 12:14~21

새찬송가 273장

14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15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16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17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18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19 너희는 이 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20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21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말씀 암송**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고후12:19)



## 14-15절 생명을 귀하게 여깁시다

사도 바울은 제3차 고린도 방문을 예비하면서 이번 방문에는 2차 방문에서처럼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표현을 하면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로서 자식 된 교회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기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했음을 말합니다.

## 16~19절 덕을 세웁시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영혼이기에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나 자신까지도 내어 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했는데 재물을 탐한다는 악인들의 근거 없는 비방을 듣습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오해로 이어져 신앙이 흔들릴 수 있기에 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 20~21절 성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 방문 시 염려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가르침에서 떠나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거나 않을까 하는 것으로 이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일치된 교회가 되기를 원했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다면 이로 인하여 바울이 낙심하는 것이고, 교회 역시 다시금 바울이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거나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된 모습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화 될 때까지 성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변화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 08

토요일

##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고린도후서 13:1~13

새찬송가 424장

- 1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 2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 3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 4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 5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 6 우리가 버림 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 7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 8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 9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 10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 11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 12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 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 암송**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후13:13)



## 1~4절 문제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랑으로 때로는 훈계로 그리고 변명도 하면서 포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바울도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을 나타내겠다는 말씀입니다.

## 5~10절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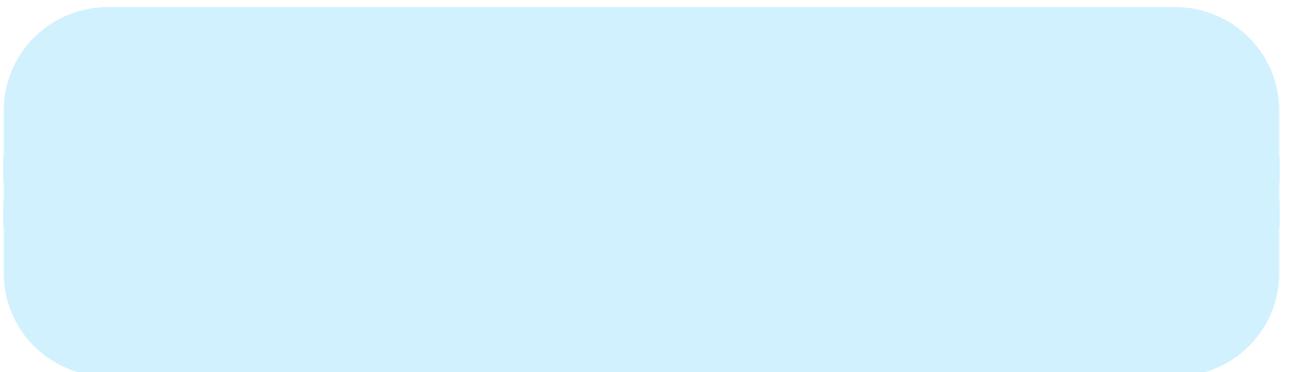
바울은 믿음에 대한 점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가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선을 행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기에 선행을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케 되었는지 시험해야 합니다. 이는 대면할 때 주께서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기 위함임을 말씀합니다.

## 11~13절 유종의미를 거둬시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편지들은 문안 인사에만 충실한데 본문에서는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고 화평하게 살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축도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 자는 영성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통하여 형제와 화목하고 우리 안에도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09

주일

## 네가 어떻게 아느냐

사무엘하 1:1 ~ 10

새찬송가 218장

- 1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 2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 3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 4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 5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 6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 7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 8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 9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 10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말씀 암송**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삼하 1:5)



##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시글락에서 잃어버린 재산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온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은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과 자신을 사랑해준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이 사울을 살피보기 위해 보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 알려준 것인데,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을 전하며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한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5~10절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고, 그 청년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있다가 종상을 입은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서 그를 죽였고, 그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져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 사람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칼에 얹드려져 죽었습니다. 아마도 아말렉 사람은 이미 죽은 사울을 발견하고 그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한 것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고, 다윗의 환심을 얻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평소 다윗과 사울의 사이가 어땠는지를 알고, 자기 생각처럼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Q** 다윗은 사울의 소식을 듣고 왜 가장 먼저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을까요?

# 10

월요일

## 여호와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사무엘하 1:11 ~ 16

새찬송가 292장

- 11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와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13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4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16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말씀 암송**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삼하 1:16)



## 11~12절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습니다. 이것은 아주 슬픈 일을 당할 때 하는 행동으로 다윗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와 한 마음으로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다윗의 무리에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을 때 사울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윗과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아말렉 청년은 심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 13~16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은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어디 사람이냐고 묻고,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며 그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사울을 죽였는지 속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다윗을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쳤다고 한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사울을 쳐서 죽인 것이 아니었지만 자기 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다윗을 이용해 자기 유익을 얻으려 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기쁨을 줄 수 없고, 어리석은 자의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Q**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 11

화요일

##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사무엘하 1:17~27

새찬송가 370장

17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18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19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0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21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제물 낼 받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22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23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4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25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27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말씀 암송**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삼하 1:26)



## 17~20절 오호라 두 용사가 었드러졌도다

비록 사울이 한때는 다윗의 목숨을 찾아 나섰지만 엄연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을 감안하여 모든 예우를 갖추어 슬퍼합니다. 그는 '오호라 두 용사가 었드러졌도다'를 반복합니다. 비록 말년에는 형편없는 지휘관으로 타락했지만 길르앗 야베스를 건지고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을 용감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이 죽음을 큰 소리를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조용히 슬퍼하며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 21~27절 두 용사의 죽음을 애도

그는 이들이 죽음을 매우 장렬한 용사들의 최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비굴하지 않았고 용맹스러웠던 그들의 모습을 독수리와 사자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음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발전시키고 영화롭게 한 주인공들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다윗의 애가는 요나단을 기억함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삶으로 다윗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윗 역시 그의 사랑에 항상 감사했고, 그의 사랑과 염려는 다윗을 향한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 더 고귀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런 애가를 부르며 슬퍼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자신을 사랑한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애가를 부르는 다윗의 모습은 성숙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Q**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통해 나를 성숙시키십니까?

# 12

수요일

##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사무엘하 2:1~7

새찬송가 213장

- 1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 2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 3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 4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니이다 하매
- 5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 6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 7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말씀 암송**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삼하 2:6)



## 1~4절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번에 치러진 왕위 즉위식은 성대하고 온 대중 앞에서 치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적인 장소에서 비밀스럽게 그리고 온 백성들 앞에서 성대하게 치러지는 다윗의 등극은 사울과 비슷합니다. 앞으로 그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유다 왕으로서 7년을 거합니다. 그리고 7년간 아직 남아있는 사울의 세력과 내란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지만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5~7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잔재는 아직도 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 집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북쪽 세력을 최선을 다해 꺾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 장례를 치러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여호와와 '은혜와 진리'를 복으로 빌어주고, 자신도 길르앗 야베스에게 선하게 갚아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는 뜻입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울이 죽음으로 어수선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랑을 베풀고 품으려고 했습니다.



**Q** 우리는 사랑으로 화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13

목요일

## 헤브론에서의 칠년 육개월

사무엘하 2:8~17

새찬송가 338장

- 8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마하나  
임으로 건너가  
9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  
라  
10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사십 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11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칠 년 육 개월이더라  
12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  
온에 이르고  
13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 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14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15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두  
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16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 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17 그 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  
에서 패하니라

**말씀 암송**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삼상 16:13)



## 8~11절

사울의 죽음으로 그와의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던 다윗은 그 잔여 세력과의 새로운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울의 사촌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 세상적인 이치를 따라 왕의 아들을 세운 결과이며, 아울러 한때나마 블레셋으로 피신했던 다윗을 믿지 못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삼상 27:1-7).

## 12~17절

헤브론의 다윗 왕국과 마하나임의 이스보셋 왕국은 기브온 못 가에서 첫 전투를 치룹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서북쪽 9km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헤브론에서는 약 35km, 마하나임에서는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보셋의 군대가 다윗 군대 진영으로 진격한 침략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어두운 자들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온 인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 14

금요일

##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사무엘하 2:18~32

새찬송가 342장

18 그 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 같이 빠르더라

19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20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21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22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23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으매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24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25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26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27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28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29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30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열아홉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31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삼백육십 명을 죽였더라

32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말씀 암송**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본문이해

## 18~32절

아사헬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을 쫓았습니다. 이는 좌우에 있는 적군에 개의치 않고 오직 아브넬만을 표적으로 삼아 질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아사헬은 자신의 빠른 발만을 믿고 만용을 부리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넬은 자신의 병술이 아사헬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고도 무모한 살인을 피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는 비록 이스보셋을 세웠지만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길로 가고자 했습니다.



적용질문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항상 '남을 땅에 엮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봅시다.

# 15

토요일

## 배반의 구실

사무엘하 3:1 ~ 11

새찬송가 86장

- 1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 2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 3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 4 넷째는 아도니야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 5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 6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 7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 8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 9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 10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 11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말씀 암송**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 1~5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칠년 육 개월을 통치하는 동안 낳은 여섯 아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을 치리하는 동안 열세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 6~1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아브넬의 권세는 강해져만 갔습니다. 전쟁 중에는 군사력을 가진 지도자가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사울의 첩과 통간한 아브넬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인생의 정권욕, 사리사욕까지도 선용하셔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분입니다.



**Q** 나의 인생 속에서 언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16

주일

##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

사무엘하 3:12~21

새찬송가 549장

12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13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14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려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 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15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16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17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18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19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20 아브넬이 부하 이십 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21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말씀 암송**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행 13:22)



## 12절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라는 물음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전체가 다윗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의미와 '그렇지만 아직 사울 왕가의 영토는 나 아브넬이 장악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브넬은 다윗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13~16절

다윗은 아브넬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 17~21절

아브넬은 다윗과의 협상을 성공시키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윗의 대적자였던 아브넬은 일사천리로 다윗에 의한 통일왕국을 시도해 나갑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누구에게나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 17

월요일

##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사무엘하 3:22 ~ 30

새찬송가 423장

- 22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을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 23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 24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 25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 26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 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 27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찢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 28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 29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 30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말씀 암송**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2:5)



## 22~27절 아브넬의 죽음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가 평안히 돌아간 사실을 안 요압이 다윗왕에게 그를 살려보낸 것을 항의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26, 27절은 다윗에게서 물러 나온 요압이 수하로 하여금 아브넬을 다시 데려오게 하여 성문으로 데려가 살해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8, 29절은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사실을 보고받은 다윗이 자신은 아브넬을 죽인 행위와 무관함을 밝히며 요압을 저주합니다.

## 28~30절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됩니다.

요압에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동생 아사헬을 위한 복수였습니다. 아사헬은 기브온 전투에서 패주하는 아브넬을 쫓다가 아브넬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압의 아브넬 살해는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였습니다. 특히 그 복수 행위가 헤브론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더욱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도피성으로 그 곳으로 피신한 살인자는 성읍 장로들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피의 보복자로부터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압은 재판도 없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범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됩니다.



**Q** 당신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복수하지는 않습니까?

# 18

화요일

## 아브넬을 장사하다

사무엘하 3:31 ~ 39

새찬송가 342장

- 31 다윗이 요압과 밋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 32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 33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 34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차꼬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 35 석양에 못 백성이 나아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 36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 37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 38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 39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악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와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말씀 암송**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빌2:12)



### 31~34절 리더는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포함으로써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의 명령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고,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윗의 왕국에 마음을 열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전히 대처해 나갑니다.

### 35~39절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비록 요압의 무분별한 행위로 평화적 민족 간 통일이 위기에 이르렀으나 다윗의 지혜로운 대처로 문제는 더 크게 되지 않고 잘 해결됩니다. 다윗이 선왕이 될 것은 성경의 예언이었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성취됩니다.



**Q** 당신은 문제가 만났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행합니까?

# 19

수요일

## 좋은 소식을 전하는 주로 생각하였어도

사무엘하 4:1 ~ 12

새찬송가 545장

- 1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 2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 3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 4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 5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별이 짙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 6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 7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 8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 9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 10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값으로 삼았거든
- 11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 12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말씀 암송**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엡3:13)



## 1~6절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진다.

결국 사울의 왕조는 막을 내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스보셋을 죽였던 바아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이 왕이 될 자격이 부족함을 보여주며 그를 암살합니다. 이는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후손들을 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삼상13:14) 이는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 7~12절 사람이 악한 꾀를 내어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바아나와 레갑은 사울 왕가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브에롯 출신이었는데 '브에롯'은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에 딸린 성읍이었습니다. (수9:17) 그런데 사울왕 생전에 이곳 사람들을 탄압하고 살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삼상21:1~6) 그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왕을 죽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은 악하게 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꾀를 내어도 결국 선악간에 심판을 받습니다.



**Q** 내가 악한 꾀를 내고 싶을 때는 언제인가요?

# 20

목요일

##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사무엘하 5:1 ~ 12

새찬송가 459장

- 1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 2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 3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 4 다윗이 나이가 삼십 세에 왕위에 올라 사십 년 동안 다스렸으며
- 5 헤브론에서 칠 년 육 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 6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 7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 8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 9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 10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 11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 12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말씀 암송**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삼하5:12)



## 1~6절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됩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주시고,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 7~12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공략합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성을 차지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더욱 강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과 높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도 성공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Q**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성공은 무엇이 있습니까?

# 21

금요일

## 물을 흠음 같이 대적을 흠으셨다

사무엘하 5:13~25

새찬송가 282장

- 13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14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15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벅과 야비아와  
16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17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18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9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20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흠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흠으셨다 하므로 그 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21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22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3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수풀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4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 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5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말씀 암송**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흠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흠으셨다 하므로 그 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삼하5:20)



## 13~16절

나라의 크기와 백성의 지지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다윗에게는 부인, 첩, 자식들도 늘어난다. 솔로몬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역사 초기에 배치된 요약문이다.

## 17~23절 블레셋을 물리치는 다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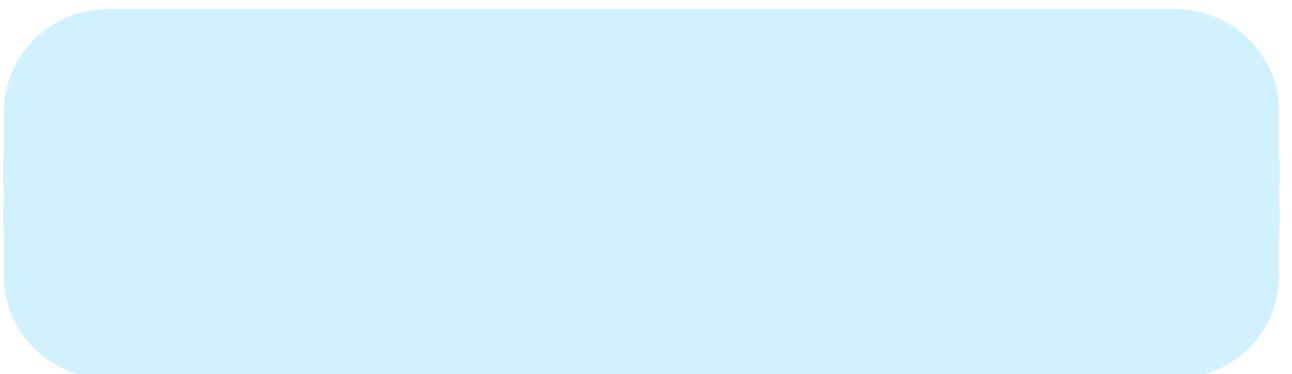
블레셋 족속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치 초기의 다윗을 시험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들은 초기 단계에 있는 다윗의 통치를 보잘것없고 취약한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같은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두 번 침략하지만, 다윗은 두 번 다 승리를 거둔다. 다윗은 마침내 블레셋을 중앙 산지에서 몰아낸다.

## 23~25절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의 이스라엘 영토를 향한 두 번째 군사적 침공을 감행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1차 침공 때와 다른 전략을 주신다. 이스라엘은 정면 공격이 아니라 후방 공격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중앙 고지에서 블레셋 족속을 몰아낸다. 그들은 블레셋 해안 평야의 가장자리에서 블레셋 족속을 밀어붙여 기브온부터(대상14:16) 서쪽의 게셀까지 대략 35킬로미터를 몰아낸다.



다윗은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폈습니다. 우리도 오늘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가 됩시다.



# 22

토요일

##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사무엘하 6:1 ~ 11

새찬송가 8장

- 1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삼만 명을 다시 모으고
- 2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 3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 4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 5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 6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 7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 8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시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 곳을 베레스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 9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 10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 11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벰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말씀 암송**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벰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삼하6:11)



## 1~11절 예루살렘으로 옮겨 온 언약궤

다윗은 새로운 왕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를 다윗 성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한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참된 왕의 임재에 대한 상징을 수도로 가져온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좌 그 자체다. 언약궤는 바알레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약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다(삼상7:1~2).

## 3절 새 수레

이것은 성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방법이다. 언약궤는 레위 지파의 고향 자손이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한다(민7:7~9; 대상15:13~15). 다윗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블레셋 족속을 흉내 낸다(삼상6:7~8).

## 6~7절

소가 비틀거리자 웃사는 언약궤가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궤를 붙잡는다.

웃사는 언약궤를 거룩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루었다. 율법에 따르면 권한이 없는 사람은 성물을 만지거나 쳐다봐서도 안 된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을 것이다(민4:15, 20). 웃사는 열의가 지나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저질렀다.

## 10~11절

이 사건은 다윗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일을 뒤로 미루게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결단하고 실행할 것을 생각해봅시다.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23

주일

##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사무엘하 6:12~23

새찬송가 446장

- 12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벰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벰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 13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 14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때에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 15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메어오니라
- 16 여호와와 그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 17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 18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 19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 20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 21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 22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 23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말씀 암송**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삼하6:21)



## 16절

본문은 미갈에 대해 다윗의 부인이 아닌 '사울의 딸'이라고 밝힌다(20,23절도 마찬가지). 이것은 그녀가 아버지 사울의 통치 방식을 지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를 업신여기니라' - 미갈이 다윗에게 분개한 것은 격하게 표출된 다윗의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다윗이 명백하게도 아버지 사울과 다른 모습의 왕이었기 때문이었다.

## 20절

미갈은 신랄하게 다윗을 비난한다.

'방탕한 자 ~ 처럼' - 이스라엘 사회의 하층 계급에 속한 천민이나 불한당처럼 (삿9:4; 11:3; 대하13:7).

'몸을 드러내셨도다' - 미갈은 다윗의 점잖지 못한 노출을 비난한다.

## 22절

'스스로' - 다윗은 겸손함을 드러낸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을 낮출 것이다. 다윗은 미갈이 이날 목격한 것보다 자신을 더욱 낮출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 23절

미갈은 다윗의 헌신과 예배 행위를 부당하게 비난한 결과, 불임의 수치를 당한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미갈을 불임으로 만드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불임은 다윗이 다시는 미갈과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 가지 반대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까?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n answer.

# 24

월요일

##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사무엘하 7:1 ~ 17

새찬송가 595장

- 1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 2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불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 3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 4 그 밤에 여호와와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5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 6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 7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 8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 9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 10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 11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 12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 13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 14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 15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 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 17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말씀 암송**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삼하7:12)



## 1~17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보관할 수 있는 항구적인 건물을 예루살렘에 지으려 한다. 여호와와는 다윗에게 그러한 성전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부하신 이유가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임을 나중에 알게 된다(왕상5:3; 대상22:8).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집은 물리적 건물이 아닌 왕조, 곧 영원한 왕조를 뜻한다. 이 맹세는 강력한 메시아적 뉘앙스를 지닌다. 그것은 '영원한' 집, 다시 말해 미래의 다윗 가문에서 나와 왕조를 세울 한 왕의 도래를 암시한다(13절).

### 12~13절

이는 이중 예언처럼 보인다.

- ① 이 구절은 솔로몬의 출생과 사역을 예언하는데, 그는 언약궤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왕상7:1~12).
- ② 영원한 다윗의 보좌는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성취된다(행2:30).

###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구절은 한편으로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의 부자 관계를 나타내지만, 신약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아들이지 다윗 보좌의 마지막 참된 상속자이신 예수께 적용한다(히1:5). 구약 자체도 이러한 가족적 표현을 메시아적으로 서술한다(시2:7; 45:6; 89:27).



**Q** 다윗과 같은 주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계획이 있습니까?

# 25

화요일

##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7: 18 ~ 29

새찬송가 369 장

- 18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 19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 20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 21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까
- 22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 23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 24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까
- 25 여호와 하나님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 26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 27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까
- 28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 29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말씀 암송**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삼하 7:29)



## 18~21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함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마음을 높이 평가하시고 다윗 개인에게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안과 다윗 가문의 보존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합니다.

다윗이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던 호칭과 동일한데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22~29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구함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자신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Q**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 26

수요일

##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8:1~8

새찬송가 351 장

- 1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 2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 3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 4 그에게서 마병 천칠백 명과 보병 이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일백 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 5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죽이고
- 6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 7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 8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대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말씀 암송**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삼하8:6)



## 1~8절 다윗의 정복전쟁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정복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최대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다윗이 완전히 제압하고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을 쳐서 승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다윗의 왕국이 견고해지고 있는 모습이며, 승리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닷에셀과의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 금 방패는 훗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 됩니다.



**Q**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 27

목요일

##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사무엘하 8:9 ~ 18

새찬송가 298장

- 9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10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11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12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훔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13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14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5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  
16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17 아히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18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말씀 암송**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삼하8:11)



## 9~12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림

다윗이 적대관계였던 하닷에셀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들은 하맛 왕 도이는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문안하고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가져가 축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알았기에 전리품과 조공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이는 훗날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됩니다.

## 13~18절 다윗의 통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임했고 에돔을 진멸함으로 다윗이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운 통치와 관료들을 임명함으로 다윗의 왕위와 이스라엘이 더욱 굳건해짐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참된 왕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 가고 있습니까?

# 28

금요일

##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사무엘하 9:1 ~ 13

새찬송가 290 장

- 1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 2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 3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 4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 5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 6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 7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 8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 9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 10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 11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 12 므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 13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밭을 다 절더라

**말씀 암송**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삼하9:7)



## 1~13절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베포 다윗의 은총

다윗이 왕국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난 후에 다윗은 과거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삼상20:12~16)을 기억하고 사울 가문을 섬기던 종 시바를 불러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다리를 저는 므비보셋을 불러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언약을 이행합니다. 므비보셋은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으나 다윗은 그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내어주고 항상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므비보셋을 자신의 가족처럼, 왕족처럼 대한다는 의미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선대하는 모습은 다윗의 신실함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Q**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 29

토요일

##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무엘하 10:1~8

새찬송가 348장

- 11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 2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풀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 3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니
- 4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불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 5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 6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이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돕 사람 만 이천 명을 고용한지라
- 7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 8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말씀 암송**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풀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삼하 10:2)



## 1~4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본문은 이스라엘과 암몬, 아람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조문 사절을 파견합니다. 다윗에게 나하스가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으로 보아 다윗과 나하스는 화친 조약을 맺고 서로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가 죽자 조문 사절을 파견했지만 그의 아들 하눈은 다윗의 조문 사절을 정탐꾼으로 판단하고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의복을 중동 불기까지 자르는 등 극심한 모욕을 가합니다.

## 5~8절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은 이 일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았습니다. 암몬은 주변 나라의 병사들을 고용하여 연합 전선을 형성합니다. 여기에는 하눈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낸 사절단이 당한 모욕에 대해 보고를 받지만 특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사절단에게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라고 지시했을 뿐입니다. 다윗은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로 인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았을 때 암몬은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어 정중히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여 전쟁의 의도를 보임으로써 다윗을 자극하고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맙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하눈만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해 멸망의 길로 내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Q**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였을 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30

주일

## 다시는 돕지 아니하니라

사무엘하 10:9~19

새찬송가 360장

9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 치고  
10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 치게 하고  
11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12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13 요압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14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15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16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17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18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칠백 대와 마병 사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19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말씀 암송**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삼하 10:12)



## 9~14절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본문 앞 8절에 보면 요압의 군대 앞뒤에 암몬 군사와 아람 동맹군이 진을 쳐서 적군에게 포위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서 요압은 이러한 상황을 간파하고 즉시 작전을 바꾸어 동생 아비새와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12절에서 요압은 동생 아비새를 향해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고 합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성읍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거룩한 전쟁이며, 자신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체성은 모든 일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15~19절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람군을 향하여 진격하자 아람군은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암몬군도 아람군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아비새 앞에서 자기들의 성으로 도망합니다. 16절에 등장하는 하닷에셀은 소바라는 나라의 왕으로 그는 이미 다윗의 군사와 싸워 두 번이나 패한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8:3~8, 1:6~14). 그는 두 번이나 싸워 패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군사와 싸우기 위해 더 많은 군사들을 소집합니다. 그러나 하닷에셀은 이스라엘과 싸워 마병만도 사만이나 잃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그제서야 다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리 삼가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Q** 큰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 31

월요일

## 다시는 돕지 아니하니라

사무엘하 11:1~13

새찬송가 539장

- 1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 2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 3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 이요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 4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 5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 6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헛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 7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 8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 9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 10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 11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 12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 13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말씀 암송**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삼하 11:9)



## 1~5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우기인 겨울이 지나고 건기인 봄이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으므로 다윗은 친히 군사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거듭된 승리와 두 번에 걸친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군대 장관 요압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암몬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다윗의 방심과 나태가 그를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다윗은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우연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유혹을 받아 그녀를 데라다가 동침합니다. 그리고 후에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 6~13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자기에게 보내도록 기별합니다.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 밧속의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며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된 시도에도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자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견잡을 수 없이 죄가 더 자랄 뿐입니다.



**Q** 죄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 1

화요일

## 그로 맞아 죽게하라

사무엘하 11:14~27

새찬송가 305장

- 14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15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16 요압이 그 성을 샅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  
17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헛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18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새  
19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20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것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21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 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벳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헛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22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23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24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헛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25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26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27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말씀 암송**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삼하 11:27)



## 14~17절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계속된 시도에도 우리아가 협조하지 않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전투를 빙자하여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으면 밧세바가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간음 사실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 18~27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요압으로부터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으며, 밧세바는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의 범죄는 완전 범죄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27절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 범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평가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Q** 나는 내 인생의 심판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주중부교회 새벽 QT

## 매일 만나

2022. 1.

**발행인** | 김미열

**도운이** | 조문상 최청환

| 한성훈 안광모

| 이상호 박예일

| 김요한 송주원

| 정재형

**발행처** | 원주중부교회

T : 033-744-2760 ~1,2

F : 033-744-2763

<http://wjjungbu.org>

